

우정장학, '행정' 아닌 '취지' 쫓아야

상이한 우정장학 기준, 이유는?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양 캠퍼스의 소득분위별 우정장학금 지급규정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디시인 사이드 경희대 갤러리',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경희대학교 에브리타임' 등 학교 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개강 전까지 지속적으로 양 캠퍼스의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우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응해 가계관련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학교 장학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 장학금이다. 현재 우정장학금은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장학팀에서 0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소득분위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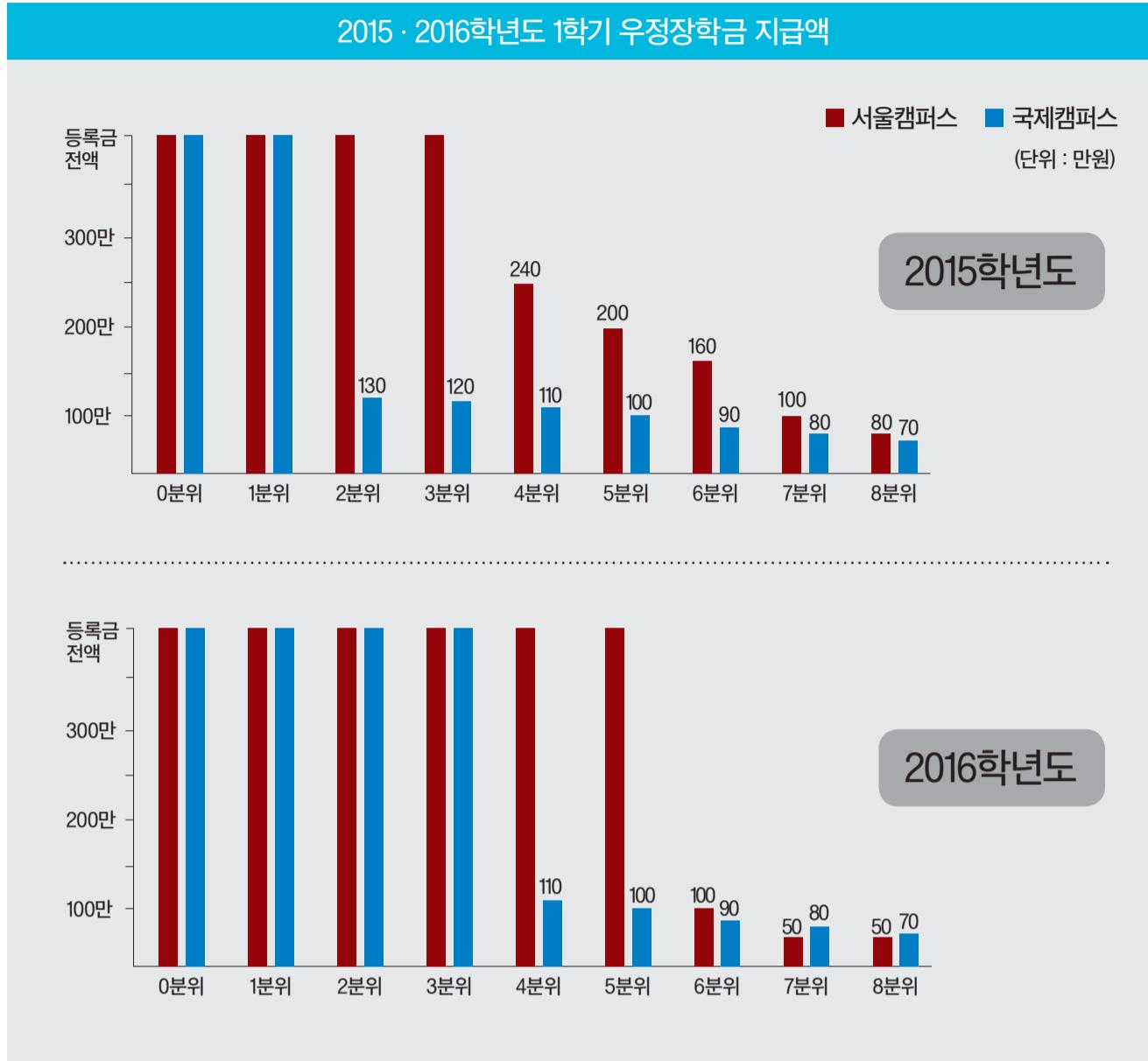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작성된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12,421번 째 게시물에서는 이 우정장학금에 대해 "2015년도 우정장학 지급안을 보니 국제캠과 서울캠 간의 장학금 배분이 심하게 다르고 실제 소득분위가 똑같아도 주는 금액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학기도 양 캠퍼스

우정장학금 서로 달라

이 같은 문제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먼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지난 2015년 2월에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201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서울캠에서는 직전 학기 학점 평점 2.4 이상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0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우정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다. 학점 평점 2.0~2.4 구간에서는 소득분위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국제캠은 사정이 달랐다. 직전 학기 학점 평점이 2.0 이상인 경우 0분위에서 1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2분위는 130만 원, 그리고 그 뒤로는 1개 분위 당 10만 원씩 차감한 액수로 우정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다.

우리신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도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양 캠퍼스 장학팀에 요청했다. 하



지만 이 자료를 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캠 장학팀은 자료를 바로 건네준 반면, 서울캠 장학팀은 지난 3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 공개를 거부한 당시 서울캠 장학팀의 김선희 계장은 "공적인 일이 아니라 일부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서약서가 있어 소득분위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으며 장학 대상자 산정, 장학금 분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던 서울캠 장학팀의 입장은, 3월 직원 인사이동 이후 바뀌게 된다. 지난 3일 재문의 본 결과, 우지연 과장은 "그때 알려드리지 못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 과장은 "서울캠 총학

에서 (온라인상에) 올린 자료를 직접 봤는데, 게시물에 올라온 지급안대로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장학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양 캠퍼스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상이했다. 먼저 이번 학기의 서울캠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0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6분위 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7, 8분위 학생에게는 50만 원을 우정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반면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4분위 학생에게는 110만 원을, 그 이후로는 1개 분위 당 10만 원씩 차감해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급내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울캠 장학팀은 "잘 모르겠다"며 "서울캠과 국제캠 지급기준을 정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캠 장학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장학팀 최문선 계장은 "산술적으로 보아도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더 많은 서울캠은 국제캠에 비해 평균 등록금 액수가 적다"면서, 이 차이가 '전액감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균 등록금이 약 314만 원인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많은 서울캠의 경우엔 소득분위가 1분위면 우정장학을 70만 원만 지급해도 전액 감면이 될 수 있지만, 평균 등록금이 약 430만 원인 이·공·예·체·능 계열 학생이 많은 국제캠의 경우엔 소득분위 1분위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F (2014학년도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학점	2012-2013학년도 이전		2013-학기부터	
	국내외인턴십수행	국내외봉사활동수행	국내외인턴십수행	국내외봉사활동수행
취득요건	국내외인턴십수행	국내외봉사활동수행	국내외인턴십수행	국내외봉사활동수행

인정기준
국내외인턴십수행

국내외봉사활동수행

국내외인턴십수행

국내외봉사활동수행